

불교교리 알아야 신심키운다

전국 불교대학

2013년 신입생 모집

신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해도 기초 교리를 알아야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올해 발심해서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의 사찰과 수행처에서 불교교양대학·대학원을 운영하며 강좌를 열고 있다. 2013년 신입생도 모집하고 있다. 기초교리서부터 다도·명상, 불교문화 등 과목도 다양하다. 대학이나 사찰을 다니기가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2년 과정으로 1주일에 1회 90분 교육을 통한 불교기초교육과 경전을 해석하기 위한 1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토요일·목요일·토요일로 나누어 강의를 개설한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이외에도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선·명상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2013년 불교학과 42기를 모집하는 동산불교대학은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 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강좌를 개설해 불교 전반적인 이론과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병조 교수(금강대 총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활안 스님(송광사 천자암 조실) 등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들이 열정적인 강의를 펼친다.

동산불교대학은 “사찰, 포교원, 각종 신행단체에서 활동할 포교사, 법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심층적 교육을 위해 불교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동산불교의식교육원’과 경전을 전문수학하는 ‘동산불교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다”며 “교계의 대덕 스님들과 석학들이 펼치는 진리의 한마당에 인연을 함께 해 큰 감동과 환희를 거



불화를 그리고 있는 동산불교대학 미술학과 학생의 모습

불교대학 교육내용 및 일정

기관	전공 및 교육내용	개강일	연락처
동산불교대학	불교학, 불교다도학과, 선·명상학과	2월 2일 부터	02-732-1206
조계사 불교대학	불교이해, 불교사 등	3월 10일	02-720-1390
봉은불교대학	불교개론, 불교문화, 성지순례	3월 10일	02-3218-4822
원효 스님 경전교실	전통강원 교과목 원전 강독	2월 28일	02-732-9500
불광불교대학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2월 말까지 모집	02-417-2551
법주사 불교대학	기초(기초교리)반, 경전반(대승경전)	3월 6일	043-542-4200
참총은 우리절	사띠수행, 위빠사나, 천수경 및 불교의식	3월 개강	063-236-6633
삼보사이버불교대학	기초교리 및 포교사 강의실 우수환 교수진	수시로 입학	cyber.sambobuddha.org

두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조계사 불교대학·불교대학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한다. 주·야간반과 토요일로 나뉘어 주1회 3시간씩 △불교이해 △불교사 △포교방법론 △인도불교이해 △중관사상 △불교원전강독 등을 가르친다. 강사진은 동국대·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는 스님과 교수진들로 구성돼있다.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1년 과정의 사이버불교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종법

스님(前 승가대 총장), 정병조 교수(금강대 총장),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재영 박사(청보리회 법사)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진들로 구성돼있다. 강좌는 석가의 생애, 초기불교의 교단, 불교교리의 특징 등을 강의하는 초기불교의 이해와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의 심리학, 포교의 이해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진 포교사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20강 정도로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

이 가능하다. 반야사상 등 총 10과목을 1년 과정으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1년이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만큼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봉은사 봉은불교대학**은 종단인가 전문 교육과정으로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경전공부, 기도정진, 선수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신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매주 수·목요일 주·야간반을 운영하며 불교개론, 부처님 생애(심화과정), 가정법회, 불교교리, 불교문화, 수련회, 경전, 성지순례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원효 스님의 경전교실**은 행복선원 시민강원 제1기를 모집한다. 불교전통강의의 교과목을 원전강독하는 모임으로 2년제 4학기 과정으로 강원을 운영한다. (초발심자 경문) <처문경훈> (사정) <선오> (대승기신론) <원각경> <금강경> 등의 원전을 강독해 나간다. 또한 경전교실 마련됐다. 입문·중급·고급·심화 등 4단계로 나누어 매주 1회 90분 수업할 예정이다. **법주사 불교대학**은 기초반 1년,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기초교리(기초반)과 경전반(대승경전)과목을 배우게 되며 매월 3째주 일요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숲속 힐링 일요법회’에 참여하게 된다.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육 60기와 불광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대학은 2년제 4학기 운영되며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문, 바라밀수행법 등을 배우게 된다. **전주 참총은우리절**은 정구반과 수행반 및 경전반을 모집한다. 정구반은 1년 2학기 기초불교교리를 배우며 수행반은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사띠수행’을 3~7월 매주 수요일 90분으로 진행한다. 또한 천수경과 불교의식을 배우는 경전반도 마련됐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수행 필수 내담자 치료 위해”

불교상담개발원 기념세미나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상담자의 인성과 태도 문제는 치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며 이를 위해 불교수행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현수 신경정신과 의원장)

“불교상담의 주요 기제는 성찰, 소통, 명상이다. 개인적, 관계적 사건을 연기적(果)을 통찰하고 새로운 선인(善因)을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현수 신경정신과 의원장이 ‘불교심리치료의 모색(실제를 중심으로)’을, 박찬욱 소장(밝은사람들연구소)이 ‘불교상담의 성찰, 소통, 명상을 통한 이고득락’을, 선업 스님(불교상담심리전문가)이 ‘불교상담개발원 활동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현수 원장은 “상담과 심리치료는 본질적으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치료자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환자와 나누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원장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며 불교수행 중 팔정도의 정견(正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담자들이 상담자 인성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상담자의 불교수행과 전문가로서의 수련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일은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소장은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론체계와 다양한 방법들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원리가 어떻게 상담에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박 소장은 “불교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각자의 삶이 주교재임을 인지시킨다. 내담자로 하여금 무상, 고, 무아에 대해 이해하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시켜 선, 불선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내담자는 생각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감정은 보듬고, 욕망은 조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 앞서 제5대 신입원장인 도현스님의 취임식이 봉행됐다. **이나는 기자**

대불청외 불교단체 4곳 문화재 지킨다

2013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이하 대불청)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13년 한 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한문화재 한지킴이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관심이 되지 않고 있는 소외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세성)은 1월 16일 문화재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모를 하고 활동우수사업 지

원단체로 31개 단체를 선정했다. 31곳 가운데 불교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 신라문화원, 충북파라미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4곳이다.

단체들은 오는 3~11월 △지역주민 청소년 지킴이 활성화 분야 △문화재지킴이 운동 확산 분야 등에서 문화재 보호 사업을 펼치게 된다.

대불청은 전국 대불청 지구와 더불어 소외된 사찰 폐사지에서 집중적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펼쳐 불교문화재를 청년들의 손으로 가꾸어 나아가고 있다.

대불청은 “전국 각 지구에서 폐사지를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폐사지 음악회를 개최해 불교



문화재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문화유적이 단순히 문화재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도록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불청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 전문가와 결합해 대불청 불교

문화재 지킴이를 양성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가며 불교단체중 불교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불교 문화재 지킴이 대표단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나는 기자**

포교원, 지구촌어린이 돕기 나서

정전 60주년 법회 앞두고 방생법회 등 협조 요청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지구촌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생명평화 방생 운동을 전개한다.

포교원은 201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9월 부산에서 기해 중인 한 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대회를 앞두고 생명평화 방생운동을 통해 분위기 조성해 나간다. 생명평화 방생운동은 지구촌 빈곤아동 돕기로 진행된다.

포교원 측은 “한국전쟁 당시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에 시달렸다”며 “다행히 세계 우방의 원조로 우리 아이들이 기아와 빈곤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

다”고 생명평화 방생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교원 측은 이어 “지구촌에서는 소아마비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보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방생 불사”라고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포교원은 2월부터 진행되는 정월 방생법회를 생명방생 불사로 전환하기 위해 방생법회를 진행하는 각 사찰에 협조 공문 등을 통해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김대관 벽송예하께서는 2013년 1월 10일 경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수신으로 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종정벽송) 명의로 12가지 안건의 소명을 요구하며 종회소집을 요구하고, 규정부 조사결과 종정은 종단에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명장을 발부하는 등 도당을 지어 종단의 화합을 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불교원효종 2557년 제 1 차 중앙종회회의에서 종정예하의 해임과 징계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금일자로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의 직책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규정부 제 4 장 징계 제 16 조 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에 근거하여 체탈도첩 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2557년 1월 25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 향운
대한불교원효종 규정부장 김상배 상묵